

날짜: 5786 년, 8 월 29 일 (2025 년 11 월 20 일)

토라 문: 족보

주제: 거짓된 미덕의 위험

탈무드 아보다 자라 10b 는 로마 제국의 도덕적 위선을 다루는 맥락에서 **에서의 성격**을 고찰합니다. 랍비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정복과 문명화가 결코 이타적이거나 고상한 것이 아니라, **착취를 감추는 가면**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라비 요시 바르 하니나는 로마가 시장, 다리, 목욕탕 등을 백성을 위해 건설한다고 주장하지만, 실제로는 자신의 **방탕함과 재정적 탐욕**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이는 미드라시가 에서를 로마, 그리고 **돼지**와 연결지으며 부여한 상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. 돼지가 **갈라진 굽**을 드러내며 겉으로는 정결한 동물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금지된 속성을 갖고 있듯이, 로마 역시 문명적 성취로 겉모습을 미화하지만 그 안에는 **도덕적 부패**가 숨겨져 있습니다.

조하르(1:146a)는 이러한 이중성을 더 깊은 카발라적 틀에서 설명합니다. 조하르는 에서를 ****클리파(kelipah, 신적 빛을 감추는 껍질)****와 동일시합니다. 에서는 겉으로는 강력하고 문화적이며 도덕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, 궁극적으로는 **거룩함이 결여된 외피**를 대표합니다. 이 맥락에서 돼지는 단순한 위선의 상징을 넘어, ****정결함을 가장하는 부정(tum'ah)****의 상징이 됩니다.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등 경건한 척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윤리를 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조하르는 이러한 거짓된 외양이야말로 에서와 그의 후손이 위험한 이유라고 강조합니다. 그들은 **거룩함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왜곡**하며, 이는 시트라 아흐라(Other Side)의 더 깊은 형태입니다.

미드라시 탄후마(타즈리아 5)는 왜 토라가 정결한 징표를 하나만 가진 동물들을 구분하는지 설명합니다. 랍비들은 이 동물들이 **겉으로만 의로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완전성이 결여된 민족**들의 은유라고 말합니다. 돼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눈에 보이는 단 하나의 정결 징표가 오히려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죠. 이는 클리 야카르의 해석과도 맞닿아 있으며, **외적 순응이 내적 도덕적 실체 없이 존재할 때 그것은 단순한 미비가 아니라 적극적 부패**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에서의 민족, 곧 로마는 이러한 영적 위험의 구현체로 간주되고 — 폭력과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**의로움의 외양을 모방하는 권력 구조**인 것입니다.

신명기 33 장에 대한 시프레는 야곱과 에서를 더욱 대조시키며, 야곱의 "목소리"를 **기도와 토라**로, 에서의 "손"을 **강압과 전쟁**으로 해석합니다. 이 구분은 단순 묘사가 아니라 신학적 비판입니다. 에서는 **언약과 정반대되는 힘의 방식**을 상징합니다. 심지어 창세기 33 장에서 에서가 화해를 시도하는 순간에도 랍비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. 베레쉬트 라바 78:9 는 "그가 그를 입맞추었다(נִשְׁקָיו)"라는 구절 위에 찍힌 점들을 주목하며, 이를 전통적으로 ****입맞춤이 아닌 '물어뜯기'****로 해석합니다. 그만큼 에서의 평화 제스처는 **표면적이고 기만적**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.

레위기 라바 13:5 는 메시아적 미래를 다루며, 현재는 부정한 돼지가 **장차(일부 견해에 따르면) 정결하게 될 것**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음식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, **돼지로 상징되는 민족들—로마—의 궁극적 변화를 암시**하는 것으로 읽힙니다. 따라서 돼지의 비유는 단지 현재의 위선성만이 아니라, **가장 타락한 세력마저 최종적으로 정화될 것**이라는 종말론적 차원을 포함합니다. 그러나 그때까지 돼지는—그리고 에서와 로마는—**왜곡의 상징**으로 남아 있습니다.

피르케 데-라비 엘리에제르(38 장)는 에서를 ****거짓(sheker)****과 ****표면성(chitzoniyut)****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. 야곱이 ****진리(emet)**와 **언약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면**, 에서는 **외양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인물**을 상징합니다. 이것은 에서가 **장자의 권리를 ** lentil stew 한 그릇으로 충동적으로 팔아넘기는 장면**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. 이는 장기적 영적 헌신을 버리고 **즉각적 물질 욕구**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. 돼지가 겉모습으로는 정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하듯이, 에서 역시 외적으로는 고상하고 힘 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.

종합하면, 미드라시·탈무드·조하르에서 에서와 돼지를 연결시키는 해석은 **더 큰 신학적·윤리적 비판**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에서—로마—돼지의 위험은 노골적 악행이 아니라, **부정을 덕의 언어로 위장하는 능력**에 있습니다. 이 상징적 연결은 독자들에게 **겉모습 너머를 살피고**, 개인·사회·권력 구조의 **영적 본질을 분별하**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읽을 때, 토라의 음식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**윤리적 경계와 영적 통찰력을 요구하는 깊은 우화**가 되는 것입니다.

샬롬